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1, pp. 244-253,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1.244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금순[1*], 윤영주[2]
[1]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문경대학교 보건의료재활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Geum-Soon Kim[1*], Young-ju Yoon[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ung College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Rehabilitation, Mun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0년 10월26일부터 11월 2일까지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31명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ANOVA, Scheff'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행복감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β=.26, p=.002), 자아 탄력성(β=.32, p<.001), 전공만족도(β=.27, p<.001)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을 43%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subjective happiness. From October 26th to November 2nd, 2020, 131 students from the four-year nursing department were survey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Scheff'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5.0. As a result of the study, subjective happiness was academic self-efficacy (β=.26, p=.002), self-resilience (β=.32, p<.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β=.27, p<.001), 43% explained subjective happiness. In conclus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were in the order of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o improve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 끼는 마음이나 느낌'으로(표준국어대사전, 1999) 문화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이며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류가 추구해온 삶의 최종 목표이다[1].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Corresponding Author : Geum-Soon Kim(sara3678@hanmail.net)
Received December 4, 2020
Revised January 6, 2021
Accepted January 20,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감정으로서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이며[2],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토대로 삶이 살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의미인 행복감의 개념으로서 최근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3,4].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으며, 자신감, 직업에 대한 강한 의욕이 보이며[5], 스트레스에 강하고, 자신의 생활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생활만족도와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즐겁고 기쁜지를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정서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1]. 이에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개인이 사유하려는 행복감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며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이며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일반대학 졸업 후 간호학과에 재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는 학생 수가 증가되었고, 신입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의 적성보다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적성 불일치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학습, 외부기관에서의 임상실습,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중압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6].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4배 정도 높고, 삶의 만족,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었고 교육부는 코로나 19(COVID-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학은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적 수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 활동과 국가시험 준비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 교육 인증기준 1,000시간 이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내 실습 및 온라인 실습 병행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경험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이후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8] 건강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예비간호사로서 행복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행복감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9].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행복에 대한 인식연구[10], 자아존중감[11],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12], 취업스트레스[13], 자아탄력성 등[14]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상황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믿음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5].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에 대한 지각된 학습활동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학업성공의 향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한다[16]. 또한 분별력 있게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유능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및 증진을 통하여 취업 준비 활동에서 자신감을 가지며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간호역량과 전문성 활동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행복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8],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 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거나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20],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의미를 찾아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21].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보호 능력으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이 높고, 개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인

지 능력이 높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22]. 또한 새로운 환경의 대학 생활과 전문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 및 대학 생활 적응과 주요 요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23]. 자아탄력성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해 만족도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아탄력성 정도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중간에 작용을 할 경우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은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그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타인이 평가하였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을 의미한다[24]. 또한, 동일한 학과에 속해 있더라도 환경을 수용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좋거나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25],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진학한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다[26]. 반면 대학생이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한 성적 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유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 유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전공 만족도의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 효과가 있으며[28],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므로 결국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간호대학생의 행복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이후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17]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30], 자아존중감, 감사 성향, 동료 관계 및 몰입이 영향을 미치고[31], 긍정적 사고가 영향을 주었다[32].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3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측 검정에서 효과크기(f^2)=0.11,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21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3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6이었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Lee와 Kim[35]이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Kim[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2.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36]이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Lee[37]가 수정·보완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2.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Suh와 Koo[4]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이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로 행복 점수는 삶의 만족감 점수와 긍정적 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적 점수를 뺀 점수로 최저 8점에서 최고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Koo[4] 연구에서 Cronbach's α=.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0년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만약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순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20~24세가 86.3%, 여성이 82.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64.1%, 기독교 14.5%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은 30-39만원이 42.0%가 가장 많았다. 건강문제는 없음이 100%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보장 49.6%, 전문성 특성 24.4%, 부모님 및 주변 권유 22.1%, 봉사정신 2.3%, 성적에 맞춤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는 건강 50.4%, 보통 35.1%, 매우 건강 14.5%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입학 후 힘든 점은 학업 분량 80.9%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9.6%, 보통 34.4%, 매우 만족 13.0%, 만족하지 않음 3.1%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무지는 대학병원 50.4%, 병원 35.9%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성적은 3.0-3.5 미만이 45.0%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84.7%,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66.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	Categories	n(%) M±SD
Age(year)	20-24	113(86.3)
	25 ≤	18(13.7)
Gender	Male	23(17.6)
	Female	108(82.4)
Religion	Christian	19(14.5)
	Catholic	11(8.4)
	Buddhism	17(13.0)
	No religion	84(64.1)
	Etc	0
Monthly income(won)	10-19	24(18.3)
	20-29	25(19.1)
	30-39	55(42.0)
	40 ≤	27(20.6)

Variable	Categories	n(%) M±SD
Health problem	Yes	0
	No	131(100.0)
Admission motive	Guarantee of employment	65(49.6)
	Ambient recommendation	29(22.1)
	Expertise characteristic	32(24.4)
	Service spirit	3(2.3)
	Based on grade	2(1.5)
Health status	Excellent	19(14.5)
	Well	66(50.4)
	Normal	46(35.1)
	Not healthy	0
	Not very healthy	0
Difficulties after admission	Interaction with professor	4(3.1)
	Interaction with students	14(10.7)
	Academic quantity	106(80.9)
	Academic events	2(1.5)
	Etc	5(3.8)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7(13.0)
	Satisfied	65(49.6)
	Average	45(34.4)
	Not satisfied	4(3.1)
	Not very satisfied	0
Desired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66(50.4)
	Hospital/clinic	47(35.9)
	Health service official	18(13.7)
	Community	0
	Etc	0
Grade point average	≥ 2.5	2(1.5)
	2.5-2.9	10(7.6)
	3.0-3.4	59(45.0)
	3.5-3.9	37(28.2)
	4.0-4.5	23(17.6)
Campus life satisfaction	Yes	111(84.7)
	No	20(15.3)
Club experience	Yes	87(66.4)
	No	44(33.6)

3.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Table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4.04±0.46점, 자아탄력성의 평균점수는 4.01±0.46점, 전공만족도의 평균점수는 4.31±0.31,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점수는 4.47±0.5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Subject, Ego 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Min	Max	M±SD
Academic self-efficacy	3.00	5.00	4.04±0.46
Self-resilience	2.61	5.00	4.01±0.46
Department satisfaction	3.83	5.00	4.31±0.31
Subjective happiness	3.56	5.44	4.47±0.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Table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입학 동기(F=2.61, p=.039), 주관적 건강상태(F=5.46, p=.008), 전공 만족도(F=4.71, p=.004), 희망 근무지(F=3.22, p=.043), 대학 생활 만족(t=0.5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입학 동기에서 '성적에 맞춤', '봉사 정신', '전문성 특성', '부모님 및 주변 권유'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취업 보장'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 근무지가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 생활 만족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자아 탄력성은 주관적 건강상태(F=5.66, p=.004), 전공 만족도(F=6.20, p=.001), 희망 근무지(F=4.08, p=.019), 평균성적(F=2.64, p=.037), 대학 생활 만족도(t=0.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자아 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 근무지는 '보건직 공무원'이나 '대학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 탄력성이 높았다.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자아 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 생활 만족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는 희망 근무지(F=6.52,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 근무지는 '보건직 공무원'이나 '대학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높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전공 만족도(F=6.14, p=.001), 대학생활 만족도(t=0.000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

이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연령, 성별, 종교,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입학 후 힘든 점, 희망 근무지, 평균성적, 동아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Age	20-24	113(86.3)	4.04±0.47	0.30 (.829)		3.99±0.46	0.81 (.393)		4.31±0.31	0.48 (.854)		26.44±4.53	0.63 (.268)	
	25≤	18(13.7)	4.06±0.37			4.09±0.48			4.30±0.34			25.17±4.45		
Gender	Male	23(17.6)	3.94±0.46	0.86 (.231)		3.92±0.55	0.30 (.344)		4.30±0.26	0.23 (.812)		26.35±4.49	0.93 (.925)	
	Female	108(82.4)	4.06±0.45			4.02±0.44			4.31±0.32			26.25±4.55		
Religion	Christian	19(14.5)	4.05±0.43	0.12 (.951)		4.02±0.43	0.67 (.572)		4.28±0.27	0.74 (.530)		28.37±3.95	1.71 (.168)	
	Catholic	11(8.4)	4.03±0.42			4.19±0.41			4.44±0.29			26.55±4.63		
	Buddhism	17(13.0)	3.98±0.42			4.01±0.35			4.30±0.33			26.00±5.04		
	No religion	84(64.1)	4.06±0.48			3.98±0.50			4.30±0.32			25.81±4.47		
Monthly income(won)	10-19	24(18.3)	3.93±0.40	0.64 (.592)		4.00±0.40	0.10 (.962)		4.30±0.32	0.57 (.633)		25.58±3.54	0.26 (.857)	
	20-29	25(19.1)	4.09±0.51			3.99±0.46			4.26±0.30			26.16±5.20		
	30-39	55(42.0)	4.07±0.47			3.99±0.52			4.35±0.32			26.49±4.92		
	40≤	27(20.6)	4.06±0.43			4.05±0.41			4.28±0.29			26.52±3.92		
Admission motive	Guarantee of employment [a]	65(49.6)	3.96±0.49	2.61 (.039)	e,d,c,b)a	3.92±0.49	1.83 (.127)		4.29±0.28	0.28 (.882)		26.06±4.05	1.79 (.135)	
	Ambient recommendation [b]	29(22.1)	4.05±0.45			3.98±0.40			4.27±0.27			25.45±4.98		
	Expertise characteristic [c]	32(24.4)	4.12±0.35			4.16±0.43			4.35±0.36			26.69±4.66		
	Service spirit [d]	3(2.3)	4.34±0.26			4.15±0.23			4.48±0.57			30.33±6.43		
	Based on grade [e]	2(1.5)	4.81±0.28			4.36±0.91			4.50±0.71			32.00±4.24		
Health status	Excellent [a]	19(14.5)	4.10±0.55	5.46 (.008)	b,a)c	3.92±0.44	5.66 (.004)	b,a)c	4.29±0.29	0.41 (.668)		26.74±4.94	1.62 (.202)	
	Well [b]	66(50.4)	4.15±0.38			4.13±0.39			4.33±0.34			26.80±4.58		
	Normal [c]	46(35.1)	3.87±0.47			3.86±0.52			4.28±0.28			25.30±4.19		
Difficulties after admission	Interaction with professor	4(3.1)	4.55±0.48	1.61 (.176)		3.95±0.49	0.44 (.778)		4.18±0.08	1.36 (.250)		29.50±1.73	1.54 (.194)	
	Interaction with students	14(10.7)	4.15±0.58			4.09±0.62			4.45±0.32			28.07±4.55		
	Academic quantity	106(80.9)	4.01±0.44			4.01±0.45			4.30±0.31			25.99±4.56		
	Academic events	2(1.5)	3.90±0.30			3.86±0.11			4.06±0.32			22.50±0.71		
	Etc	5(3.8)	3.99±0.41			3.79±0.39			4.38±0.31			26.00±4.47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17(13.0)	4.13±0.49	4.71 (.004)		4.13±0.38	6.20 (.001)					28.82±5.26	6.14 (.001)	a,b,c)d
	Satisfied [b]	65(49.6)	4.16±0.38			4.13±0.42						27.03±4.18		
	Average [c]	45(34.4)	3.87±0.50			3.78±0.47						24.51±4.16		
	Not satisfied [d]	4(3.1)	3.77±0.17			3.92±0.53						22.75±1.26		
Desired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a]	66(50.4)	4.10±0.44	3.22 (.043)		4.07±0.47	4.08 (.019)	c,a)b	4.36±0.32	6.52 (.002)	c,a)b	26.64±4.82	2.05 (.133)	
	Hospital/clinic [b]	47(35.9)	3.91±0.45			3.86±0.41			4.19±0.26			25.28±4.07		
	Health service official [c]	18(13.7)	4.16±0.46			4.15±0.47			4.44±0.31			27.50±4.26		
Grade point average	〉2.5	2(1.5)	3.79±0.50	1.50 (.205)		4.14±0.82	2.64 (.037)		4.17±0.23	1.68 (.158)		25.50±4.95	0.87 (.482)	
	2.5-2.9	10(7.6)	4.00±0.63			3.96±0.50			4.24±0.25			26.10±4.20		
	3.0-3.4	59(45.0)	3.98±0.44			3.91±0.41			4.30±0.30			25.78±4.56		
	3.5-3.9	37(28.2)	4.05±0.39			4.00±0.49			4.27±0.29			26.16±4.57		
	4.0-4.5	23(17.6)	4.24±0.49			4.27±0.43			4.45±0.37			27.83±4.51		
Campus life satisfaction	Yes	111(84.7)	4.10±0.43	0.55 (<.001)		4.07±0.44	0.80 (<.001)		4.31±0.31	0.55 (.649)		26.86±4.48	0.0003 (<.001)	
	No	20(15.3)	3.70±0.45			3.67±0.45			4.28±0.32			23.00±3.24		
Club experience	Yes	87(66.4)	4.01±0.47	0.79 (.298)		3.96±0.45	0.20 (.121)		4.28±0.29	0.10 (.133)		26.30±4.38	0.45 (.911)	
	No	44(33.6)	4.10±0.43			4.09±0.49			4.37±0.34			26.20±4.85		

3.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523, p<.001), 자아탄력성(r=.568, p<.001), 전공 만족도(r=.458, p<.001)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ject's Self Efficacy,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Subjective happin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r(p)		
Academic self-efficacy	.523(<.001)	1	
Self-resilience	.568(<.001)	.588(<.001)	1

3.5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력은 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11,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 중 대학생활의 만족여부와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32, p<.001), 전공만족도(β=.27,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β=.26, p=.00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Self-resilience	0.32	3.75	<.001	0.32	33.11*
Department satisfaction	0.27	3.73	<.001	0.39	
Academic self-efficacy	0.26	3.14	.002	0.43	

4. 논의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7점 만점에 4.4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Ko[19]의 연구와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17]연구와 3년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8]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 학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 만족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을 이수 과정에 대하여 만족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상황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믿음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5].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Cho 등[38]의 연구에서 3.93점, Han 등[14]은 3.48점, Yang[40]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입학 동기, 건강 상태, 전공 만족, 희망 근무지, 대학 생활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취업 보장'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 형성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4.01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거나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Jung[41]의 3.22점, Lee 등[42]의 3.38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전공 만족, 희망 근무지, 평균성적, 대학 생활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 근무지는 '보건직 공무원' 이라고 답한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4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4.31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그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타인이 평가하였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을 의미한다[27]. 선행연구에서 Jeon 등[44]은 3.79점, Park등[20]의 3.86점, Kim[28]의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Jo[45]의 4.7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44].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희망 근무지로 '보건직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3교대 근무와 복잡한 대인관계, 엄격한 조직 환경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임상현장의 간호근무환경의 개선 및 유연한 간호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사회적·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43% 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일부 지역에 국한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대상자 표집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4학년 간호대학생 전체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개념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규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E. Diener.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The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2] S. B. Kim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3] S. H. Kook & C. N. Soon. (2000). A Validation of GHQ / QL - 12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Using RMSEA , ECVI, and Rasch Model.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87-602.

[4]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5] Wi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67(4)*, 294-306.

[6] H. S. Lee & E. J. Kim (2008).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1)*, 5-13.

[7] W. H. Jun & K. S. Cha & K. L. Lee. (2015).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76-284. DOI: 10.5977/JIKASNE.2015.21.2.276

[8] J. H. Kim & Jeon HO.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2)*, 123-32.

[9] K. H. Jo. (2011).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78-189

[10] G. Y. Jo & H. S. Park.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 160-169.

[11] K. B. Byeon. (2005).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12] E. M. Kim & Y. H. Yang& H. Y. Lee& M. Yu.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94-303.

[13] S. H. Kim & S. H. Lee. (2015). Th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1),* 63-72.

[14] S. J. Han & H. Y. Kim. (2018).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ive Happiness, Ego-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the Giver, Taker, Match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61-467.
DOI : 10.15207/JKCS.2018.9.4.461

[15] M. J. Kim (2017).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6]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17]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e, 25(2),* 123-132.

[18] M. S. Ko.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4(2)*, 58-92.
DOI : 10.15715/kjhcom.2019.14.2.85

[19] M. S. Ko. (2019). *14(2)*, 85-92.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 14(2),* 85-92.

[20] S. H. Park & S. H. Han. (2016).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17(8),* 517-526.

[22] J. H. Park & J. M. Park. (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25-134.

[23] J. A. Park & E. Y. Lee.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3).* 267-276.

[27] S. Y. Yun & M. S.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28] M. Y. Kim. (2010). Experience of Belongingness at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 Learning-connected Proc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4).* 395-407.

[29] J. S. Jung & M. J. Jeon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30] H. S. Park. (2014).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471-481.

[31] J. H. Park & G. Y. Jo. (2016).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511-522.
DOI : 10.7465/JKDI.2016.2.27.511

[32] S. O. Kim.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5(12)*, 435-444.

[33] M. M. Tugade & B. L. Fredrickson & L. F. Barrett.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al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6),* 1161-1190.

[34] A. Y. Kim,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35] E. S. Lee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Resili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13(6)*

[36]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37]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38] J. H. Park & G. Y. Jo. (2016).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511-522.
DOI : 10.7465/JKDI.2016.2.27.511

[39] J. H. Cho & K. H. Baek & M.O. Cho. (2019).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17(6),* 257-265.
DOI : 10.14400/JDC.2019.17.6.257

[40] K. M. Y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Digtal Convergence,15(2),* 445-453.
DOI : 10.14400/JDC.2017.15.12.445

[41]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Digtal Convergence, 14(7),* 259-268.
DOI : 10.14400/JDC.2016.14.7.259

[42] S. Y. Lee & J. S. Lee & Y. Y. Kim. (2017)/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01-409.

[43] M. M. Tugade & B. L. Fredrickson & L. F. Barrett.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44] M. H. Jeon & M.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45] I. T. Cho. (2020).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118-128.

[46] Y. C. Kwon & C. E,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97-20.

김 금 순(Geum-Soo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3년 9월 아주대학교 박사수료
· 2017년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연구, 간호윤리, 간호리더십
· E-Mail : sara3678@hanmail.net

윤 영 주(Young-Ju Yoon) [정회원]

· 2020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보건의료재활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역학, 지역사회간호
· E-Mail : yyj8887@hanmail.net